

공직사회 '몸조심' ... 더치페이 확산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각자 카드와 현금을 계산대 위에 내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27일 전주의 한 음식점 건물이 폐업 상태로 비어 있다. 주변 상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이 음식점 주차장에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내 어느 음식점 건물 내 매뉴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음식점과 술집을 찾는 손님(고객)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오찬 2만5000원, 만찬 2만9000원 등 이른바 '김영란 법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교직원 등은 우왕좌왕하며 이른바 '법 앞기'에만 주력했다.

그러나 법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 법 테두리에 있는 공무원 등 해당자들은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더치페이(각자 내기)를 하는 등 서서히 적응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본보기로 자신들이 회생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작용해 첫째도 몸조심, 둘째도 몸조심이다.

30일,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에 달라진 전북지역 생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직사회 너도나도 조심하... 밥·술 약속 줄어

전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A(38)씨는 법 시행 전에는 대부분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다. 청사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달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식권으로 청사 매점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로 인해 특별한 약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혹시나 누가 나를 신고할까'라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A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맘 편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가급적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 밖에서 점심을 먹고 싶으면 종종 회사에 다

공무원 구내식당 이용 또는 1만원 이하 점심 메뉴 선택

법 시행 후 매출 떨어져 문 닫는 술집·음식점 속속 드러나

나는 아내한테 연락해 함께 먹는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생활 형태는 많이 바뀌었다. 점심을 먹게되도 해장국이나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등 가격이 1만원 이하의 메뉴를 선택해 먹는다.

저녁 즉 술자리는 점심보다 더욱 심각하다. 당초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던 일식집의 경우 손님이 대폭 줄었고, '2차 문화'도 많이 줄어들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 형식으로 즐기고, 2차로 술집을 가는 것이 아닌 커피숍을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같은 과 또는 실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단체로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관계도 변하고 있다. 홍보할 자료가 있을 경우 대부분 오전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점심을 함께 했지만 많이 축소됐다.

일부 관공서의 경우에는 기자 간담회를 아예 점심식사 이후인 오후 1시30분 또는 오후2시에 갖기도 한다.

▲ 관공서 인근 음식점·술집 '몰상'

청탁금지법 이후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음식점과 술집을 찾는 손님(고객)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일부 일식집에서는 오찬 2만5000원, 만찬 2만9000원 등

이른바 '김영란 법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매출이 너무 떨어져 문을 닫는 음식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전주의 한 일식집의 경우 최근 문을 닫았다. 입구쪽에는 '그 동안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매대 현수막만 붙여져 있을 뿐이다.

이 음식점은 법 시행 전까지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던 유명 일식집이었다.

또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2~3곳의 음식점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도청 등 관공서 인근에 밀집돼 있는 전주 신시가지의 음식점과 술집도 매출을 올리기위해 각종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 곳의 경우 밤 12시가 다 돼도 불야성을 이룬 곳이지만, 이제는 대학생 등 20대 젊은층만 눈에 띌 뿐, 30대 이상 직장인 등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 업무추진비 삭감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전북도는 업무추진비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업무추진

진비 삭감 발언을 했다.

당시 송 지사는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듯이 간담회 후 식사 등이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다. 대부분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 농축수산물 분야 피해 현실화

청탁금지법은 비단 생활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다.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한우와 홍삼 등 민감품목의 경우 평균 9.1% 가격이 하락했다.

법 시행 전 홍삼(600g)의 가격은 18만원이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4만원으로 하락했다.

한우(600kg) 가격 역시 법 시행 이전에는 676만1000원이었지만, 이후에는 657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5만원 미만 선물가격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었고, 1만원 이하의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업체(법인 등)의 매출 역시 민감품목은 법 시행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20.1%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nonghyup.com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로
농민 속으로 다가하겠습니다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NH 농협